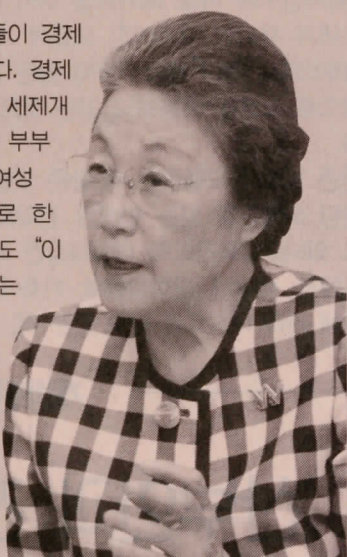


노폐 후 여성계 대표에게 듣는다

⑦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우선돼야 할 것은 세계개혁과 여성에 대한 재산권리 부여 즉 부부 공동재산제 도입이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던 날 국회에서도 “이제 여성들이 내실 있는 실력을 갖추는 과제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으며 경제적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이사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을 주문했다.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을 주요영역으로 하고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일컫는 ‘돌봄의 노동’이 강조되는 사회적 일자리가 증가할수록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부가 교육 보건복지·보육·문화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특화해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과 전산·회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 이사장은 현재 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며 ‘기부와 관련된 규제법보다 육성법이 마련될 때’라고 지적했다. 기부문화가 확산된다보면 여성활동지원을 위한 기부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여성재단의 역할은 더욱 크다. 여성

내실 튼튼·실력 쑥쑥 키워 여성 가난의 덫서 벗어나야

등 중소기업 사무직 분야에 집중된 전업주부 재취업사업의 경우, 30~40대가 80%(사회적 일자리), 대졸 이상 49%, 고졸 46%인 것으로 나타나 육아 등으로 직업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중년여성들의 재취업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실질적 일자리 마련과 함께 박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기부문화 확산’

“사랑의 리퀘스트 등을 통해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기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시민운동, 공동체 등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율이 낮은 편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기부는 공익활동 기부율보다 낮기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

재단은 창립 이래 제도개혁, 연구 및 교육사업, 언론시정 활동, 소송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 해외파견 및 장학금 지급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6년간 여성재단이 기부자들을 찾아다니며 기부금을 모았다면 앞으로는 자발적인 기부자들이 증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여성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 이사장은 히스토리와 허스토리를 넘어 ‘휴먼스토리’로 구성되는 역사를 꿈꾸며 각계에 진출해 일취월장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혜원 기자 chw@iwomantimes.com

■ 한국여성재단은?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을 위한 최초의 민간 공익재단으로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는 희망을 안고 여성계 124개 여성단체장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발족위원들과 함께 지난 1999년 12월 발족했다. 현재 9만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성재단은 저소득 모자가정 거울나기 성금지원사업, 실직여성 취업과 창업교육비 지원, 여성공익사업에 3억원 지원 등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전개하고 있다.